

●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그 다리, 우리 환자에게서 절단"...항당 전말 '시끌'	사회	주요뉴스
2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쉽진 않겠지만" 내비친 여유	세계	주요뉴스

(1) 기사/뉴스 요약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c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어제(17일) 오후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늘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용기에 담아 버렸지만, 청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cm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 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리고 1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10mm가량 되는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소문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핵심: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앞서 보신 아기레 감독은 멕시코 대표팀만 세 번째 맡고 있는 '명장'인데요. '애제자' 이강인 선수 못지않게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현지에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과달라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에 나선 멕시코 선수들을 '67살의 노장' 아기레 감독이 꼼꼼히 지켜봅니다.

전력 분석용 드론을 띄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우리의 '빠른 발'을 경계하면서, 특히 체코전에서 양 팀 최고인 시속 35.2km를 기록한 주장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손흥민이나 오현규 같은 한국 선수들의 스피드는 엄청나죠. 한국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맞대결에서 선방쇼를 펼치던 오초아 골키퍼를 뚫어낸 손흥민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도 강력한 왼발슛을 멕시코 골문에 꽂은 바 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팀의 중원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지난해엔 피지컬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뒀죠. 하지만 체코전에선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특유의 입담으로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고집쟁이 양반, 잘 지냈어요? 헛소리하는 것 좀 봐요. 농담입니다!]

한국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를 내비쳤습니다.

[아기레/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 :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승리를 향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핵심: 멕시코 축구대표팀 아기레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빠른 발을 경계하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AIDV	인공지능(AI)이 차량 운용 전반을 주도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개념이다. SDV를 넘어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주행 판단과 서비스를 수행하며, 온디바이스 AI와 LLM·VLM 등을 통해 실시간 인지·예측·맞춤형 기능을 구현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플라토 신드롬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른 뒤 정체되는 고원 현상을 뜻한다. 수확 체감의 법칙이나 향상성 기제로 설명되기도 하며, 심리적 번아웃이나 직무상의 커리어 플라토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방식에 변동성을 부여하고 과정 중심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체기를 도약 위한 재정비의 시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